류근상의 "Fire Bird(2004)" 곡 분석

류근상*, 조태선**
*안산시립예술단,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entheos@korea.com

A Research on Fire Bird(2004) Analysis

Guen-Sang Ryu*, Tae-Seon Cho**
*Ansan CityTroupe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200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대중음악은 소위 '퓨전(fusion)','월드뮤직(world music)', '크로스오버(cross over)' 등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악기와 장르를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작품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많이 눈이 띠는 작품은 역시 한국의 국악과 서양의 대중음악과의 혼합 이다. 서로의 음악이 혼합하여 너무 잘 어우러 질수 있다는 발견이라기 보단, 자칫 소재의 빈곤으로 그 음악이 그 음악이라는 현대 대중음악의 한계에서 탈출과, 우리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본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퓨전 록 밴드 "고스트윈드(GOSTWIND)"의 첫 번째 앨범 <10,000 Years Ago> 의 대표곡 "Fire Bird(불새)"를 연구, 분석하여 한국최초의 국악과 록음악의 혼합을 고찰해본다.

1. 서론

21세기 음악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어느 시대의 음악보다도 새로움과 독창성의 추구를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맥락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작곡가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발전된 음악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국민주의적 성향을 띄는 자국의 음악적 요소를 노래한다는 것은 새로움과 독창적인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현대음악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때, 국악과 록음악의 혼합적인 특징으로 작곡한 "Fire Bird(불새)"는 최소의 음악적 재료를 사용하여 최대의 음악적 효과를 얻고자한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Fire Bird(불새)" 작품을 악기 구성과 주요테마, 구조와 선율진행의 특징을 중심으로 ver.1, ver.2, chorus의 순서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작품분석

2.1 악기구성

"Fire Bird(불새)" 작품에서는 악기면에서도 다양성을 띄며 독창적인 어울림을 자아낸다. 록음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기타, 드럼이 전체적인 박자와 화성적인 흐름을 주도하며 그 위에 서양악기인 바이올린이 대선율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더불어 국악기인 대금도 선율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바이올린과 대비되는 색채감을 나타내고, 대금의 사용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전통음악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매개체는 바로 '창(唱)'이다. 국악 창(唱) 기법의 발성으로 가사를 노래하며 곡 전반에 독특함과 독창성을 이끌어 낸다.

2.2 가사내용

ver. 1

내가 널 갖기 위해 얼마를 기다렸는데 긴 시간 동안
한번도 널 잊은 적 없어
그렇게 넌 나에게는 큰 새 희망(希望)이었지

(“Fire Bird”)
ver. 2
네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그 사실이(“Fire Bird”)
긴 시간동안 나에겐 큰 절망이었어(“Fire Bird”)
이렇게 넌 나에게는 큰 새 우상(偶像)이었지
chorus.
나는 너를 찾아낼꺼야 너를 찾아 이 넓은 세상 너와 함께 날아갈꺼야

사람은 삶의 목표에서 긴 시간을 투자하여 찾아 이루고픈 소망이 한 가지씩은 있다. 그 소망을 반드시 찾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곡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2.3 분석

이 곡은 4/4박자, 다단조(C minor)의 곡으로 133마디로 구성되었다.
ver.1부분에서는 주요 테마가 반복적으로 동형진행을 이루며 나타난다. 대금의 독주로 시작하는 주요 테마는 ‘도(C), 레(D), 미b(Eb), 솔(G),’로 이루어져 있다. 4마디 구조의 대금 선율은 반복되고, 이 선율을 바이올린이 푸가(Fugue)의 기법을 연상시키듯이 5도 위로 동형진행을 이루며 화음을 이루고 있다. 노래 부분에서는 ′솔(G)′을 중심음으로 하여 보조음을 사용하여 순차적인 선율이 4마디 단위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ver.1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화음은 Cm, Eb, Fm이다. 리듬은 대금과 바이올린이 4분음표 단위로 흐르다가 8분음표로 변화된다. 기타는 4분음표 단위로 화음의 변화에 따라 3도 진행으로 나타난다. 베이스 기타는 8분음표 단위의 엇박으로, 드럼은 베이스드럼에서 4분음표 단위의 엇박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하이햇에서는 이미 16분음표의 리듬이 사용되어 곡 전반에 활력을 주며 흐른다.
ver.2는 노래의 가사를 달리하여 연주는 반복된다.
chorus는 3/4변박되어 시작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선율은 진도아리랑의 첫 소절 선율과 흡사하여 국악적인 색채를 자아낸다. 대금과 바이올린이 화음을 이루어 간주 형식으로 반복 하면 ‘창(唱)’ 부분에서 노래하고 서로 주고 받으며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국악의 메기고 받는 형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변박과 함께 조성도 사단조(G minor)로 변조되어 나타난다. 이는 주요테마에서 대금의 선율을 바이올린이 5도 위로 받아 동형진행을 이룬 것과 같은 맥락에서 조성감에서도 같은 5도 윗조로의 진행으로 서로 연관된다. chorus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화음은 Gm, Eb, D이다. 노래가 끝나고 후주에서는 당김음이 나타나 긴박감을 주며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주요테마를 대금과 바이올린이 연주하며 마무리짓는다.

3. 결론

작품 “Fire Bird(불새)”의 ver.1과 ver.2에 공통되는 주요 테마는, C mionor 중심의 4마디 단위의 음악적 재료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화음이 변화함에 따라 각 악기 간에 서로 주고받으며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리듬은 4분음표 단위의 리듬에서 16분음표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띄며 각 악기간의 주고받는 동형진행이 특징적이다. 국악적인 악기인 대금과 노래 ‘창(昌)’이 더해지고 화음도 단순한 화음을 살려 반복함으로써 대중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를 결합하였다. 곡의 chorus 부분에서는 진도아리랑의 첫 선율이 변형되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써 국악 고유의 색깔을 넣어 독창성이 보여진다. 그럼으로써, 이 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악과 서양의 대중음악과의 혼합이 “Fire Bird(불새)”에서 보여진다. 결국 “Fire Bird(불새)”곡을 통해 식상해진 현대 대중음악의 한계에서 탈출과, 우리만의 독창성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01)황정희 2008 실용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석사논문
02)이정선 2010 실용음악교육의 시작과 학과 개설형태 한국음악교육학회
03)박선영 2007 실용음악 교육프로그램의 요구와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부산대학교

04)실용음악 및 실용음악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2009 음악영재교육
05)박철홍 2008 실용음악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버클리음악대학을 중심으로 민족음악학회
06)장치문 2005 인터넷 실용음악 교육 사이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07)박철홍 2002 실용음악의 현황과 전망 민족음악학회